

【오카야마 씨결즈와 코지마 호수 하나카이로 마라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주말 3일 연휴 동안 각지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오카야마 씨결즈 경기와 코지마 호수 하나카이로 마라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카야마 씨결즈는 여자 배구 V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유일한 시민 클럽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는 몇 번 응원 간 적이 있었습디다만,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좀처럼 일정이 맞지 않아 부끄럽지만, 오카야마에서의 관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상대는 작년 3위의 강호 도레이팀으로 힘든 전개를 예상했지만, 끝나고 보니 세트 카운트 3-0으로 씨결즈가 압승. 세터의 미야시타 씨의 토스와 야마구치 씨와 카와바타 씨의 다채로운 공격으로 득점을 거듭하는 가운데 특히 압권이었던 것은 왼손잡이인 아사즈 씨의 강렬한 스파이크. 그걸 제대로 받으면 상대편 선수가 꽤 아프겠구나 싶어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경기 중 여러 번 반복 된 「오카야마」를 외치는 응원은 매우 박력 넘치는 훌륭한 응원이었습니다. 씨결즈도 축구 화지아노 함께 오카야마를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팀. 오카야마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5 회째를 맞이한 코지마 호수 하나카이로 마라톤은 내년부터 새로 창설되는 「오카야마 마라톤」에 계승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대회가 됩니다.

마지막 런이 되는 이번 대회에는 3km, 5km, 10km 의 3 개의 코스로 2 세부터 84 세까지 폭넓은 세대 2,410 명의 주자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10km 코스의 출발지점과 3km 코스의 표창을 담당했지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이 좋은 분위기를 「오카야마 마라톤」으로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 회에 걸쳐 대회를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코지마호수 하나카이로 후원 클럽 여러분, 그리고 DOWA 그룹 각사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